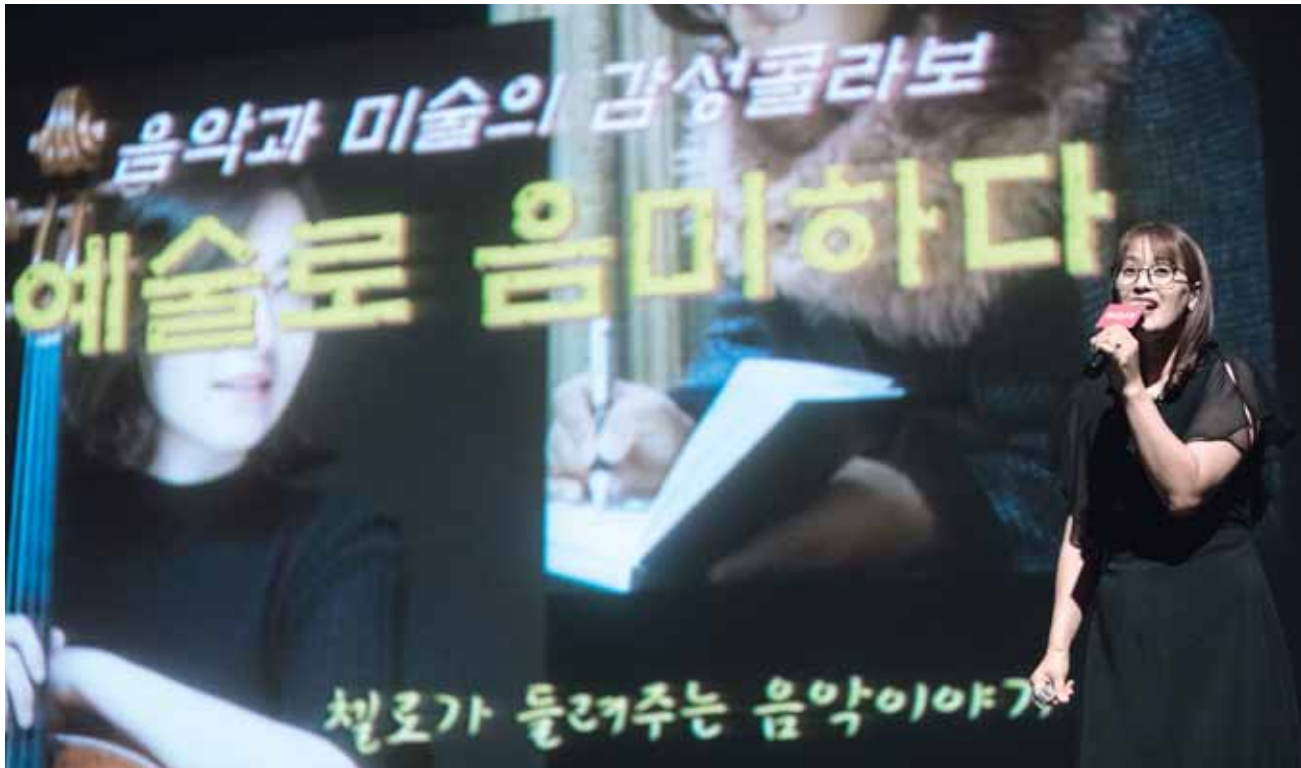


떠미샘·첼로샘, 예술로 세상과 소통하다

<떠먹여주는 미술 선생님>



지난 8월 광산문화예회관에서 열린 '미술열차, 음악과 달리다'에서 강의하고 있는 '예술로 음미하다'의 김수옥 교사의 모습.

미술·음악 결합한 인문학강좌로 인기 얻는 김수옥·이대로 교사

지난 8월말 광산문화예회관에서 만난 '음악과 미술의 콜라보-미술 열차, 음악과 달리다'는 흥미로웠다. 러시아 화가 일리아 레핀의 그림을 설명과 함께 감상하고 이어 첼로 라이브 연주로 들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는 깊은 울림을 줬다. 프랑스에서는 빛의 화가 모네의 그림을 만난 후 인상파 작곡가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를 들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거친 여행의 마지막은 한국, 공제 운두서의 '자화상'과 소리꾼 주수현이 부른 국창 임방울의 인기 레퍼토리 '속대머리' 한대목 역시 기억에 남는다.

이 기획은 '음악과 미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인 셈이었는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두 명의 강연자였다. 몇년 전부터 음악과 미술 등 예술 관련 강좌가 인기를 모으면서 스타급 강연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열정적인 강연 모습과 함께 전문 지식과 성실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각종 영상자료,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진 강연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음악과 미술의 결합'은 신선했다.

얼마 뒤 인터뷰에서 두 사람을 만나 '떠미샘'과 '첼로샘'이라 적힌 명함을 받았다. 미술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떠먹는 미술 이야기'의 김수옥 전대 사대부중 미술교사와 감성 가득한 첼로 연주와 더불어 음악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첼로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의 이대로 광주 효광중 음악교사다. 두 사람은 '예술로 음미하다'라는 팀을 꾸려 강연을 하고 개별적으로도 활동한다.

시작은 벽화봉사, 공동육아, 도서관에서 그림읽기 등 관심사가 다양했던 '떠미샘' 김수옥씨였다.

"몇년 전 광주 무양서원에서 다양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때 많은 걸 배워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것도 괜찮겠

중학교 미술·음악교사 의기투합

'예술로...' 팀 꾸려 학교밖 강연

입소문 나면서 강연 요청 쇄도



'예술로 음미하다'의 이대로(왼쪽), 김수옥 교사.

다고 생각했죠. 학교에서 그림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해온 것처럼 시민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요."

곧바로 서원측에 이야기를 해 8회 분량의 '떠먹는 미술 이야기'를 마련했다. 그러던 중 음악이 어우러지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고, 광주예술고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이대로 교사를 떠올렸다.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던 이 교사는 강의를 들으면서 자극이 됐고, '연주'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

기에 곧바로 합류했다.

"처음 그림을 설명하는데 너무 가슴이 뛰더군요. 4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모두 열심이셨어요. 한 번 오신 분이 또 다른 분을 데려오시기도 하구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프리다 칼로까지 다양한 작가를 만나고, 또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으니 재미있다고들 하셨죠. 역사, 사회, 문화배경과 더불어 그림 감상을 하고 또 그 시대의 음악까지 들으니 더 좋아하셨습니다. 아, 그림이, 음악이 이런 거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았구요.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학교 안에서 머물러 다니는 생각이었습니다."(김수옥)

"그냥 음악을 들려주기 보다는 배경을 이야기하고 싶었죠.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어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연주자로서 정체성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자극도 되고 좋았어요. 시민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커요. 가진 거를 나누는 즐거움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 치유받는 경험을 합니다. 날 새면서 자료 준비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스스로 성장하는 걸 느껴요."(이대로)

입소문이 나면서 교육청 강연이 이어지고 도서관에서 미술, 음악은 물론 철학과 역사까지 아우르는 '인문예술산책'을 진행했다. 또 광산구청의 '런치토크'에도 초대됐고 얼마전에는 서울 양천구청에서도 몇차례 강의를 했다.

꼼꼼한 두 사람은 '예술과 복지' '여성 리더십' 등 주어진 주제에 적합한 강의안을 꾸리는 데 수많은 시간을 쓴다. 기본적인 테마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수없이 읽고 관련 자료 등도 챙겨본다. 특히 이 교사는 테마와 어울리는 곡이 선정되면 라이브로 연주를 해야하는 터라 연습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예술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이예요. 저희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과 미술'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멋진 강사의 등장이 반갑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토회' 회원전 '가을, 다시 길을 걷다'

2~8일
세계장식박물관
진한갤러리



▶ 고희자 작 '가을 이야기'

1970년 목포 미로화랑에 오지호·배동신·김인규 등 6명의 작가가 모였다. 서양화 그룹 '황토회' 창립전이다. 이듬해 광주 상공회의소에서는 김영태 작가가 합류해 두번째 전시회를 열었고 이후 지금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회원전을 개최해왔다.

특히 순천 문화원 화랑, 여수 녹음다방, 남도에 솔회관 등 광주·전남은 물론이고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초대전을 열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1975년부터는 지역 추상화 대표 그룹 에뽀크와 연합전을 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부산 테아트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졌던 황토회(회장 고희자 송원대 교수)가 2~8일 49번째 회원전을 갖는다. 광주 예술의 거

리 세계 조각장식박물관 진한갤러리 초대전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가을, 다시 길을 걷다'로 고영준, 김기수, 김수복, 모종애, 박래후, 박석규, 박종수, 손철한, 윤경희, 이연자 작가 등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참여작가들은 아름다운 어촌, 이스탄불의 모습, 쓸쓸한 가을 들만 등 풍경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구상 위주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 황토회는 내년 50회 전시회를 의미있게 꾸리기 위해 다양한 기획을 준비중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을 모티브로 한 스카프도 함께 전시한다. 고희자, 정은기, 이진표 작가가 대표작을 스카프로 제작해 선보인다. 문의 062-222-00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양화가 황정후 북경 798예술구서 개인전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과일인 듯 한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고개를 가우뚱하게 된다. 두 개의 과일이 결합해 전혀 다른 과일을 만들어내 흥미롭다. 과일, 채소 등 일상의 음식을 합성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낸 서양화가 황정후 개인전이 1일까지 북경 798예술구 피링공지엔에서 열린다.

황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과일을 소재로 인간의 본질이나 사물의 다양한 속성, 보여지는 것 이면에 숨겨있는 이중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FRUIT X FRUIT'를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30여점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각각의 과일을 정교하게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과일을 만든 후 이를 사진으로 다시 재창조해 만들어낸 산물이다.

2015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센터에 입주했던 작가는 입주기간이 끝난 후 북경에 개인적으로 작업실을 구해 현지에서 머물며 활동중이다. 2004년 프랑스 생페티엔느 국립미술학교 졸업



'水果'

를 졸업한 황 작가는 파리 갤러리 에다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한중예술가들의 작업방법', '한중작가교류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7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광주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새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에 앞서 지역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다양한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광주, 서울, 대구에서 열린다.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광주토론회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분권 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